

COSMETIC REPORT

발행처 (사)대한화장품협회
발행월 2016년 1월 셋째주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문 의 Tel : 02-785-7985
Fax : 02-782-6659
E-mail : jacklbs@kcia.or.kr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

CONTENTS

화장품 정보 03

법령 정보 11

협회 업무추진현황 13

회원사 소식 16

화장품 정보

Korea
Cosmetic
Association

국내 화장품 산업계 동향

"해외로~ 세계로~"...중저가 화장품, 해외 진출 속도낸다('16.1.15)

- 중저가 로드숍 화장품 브랜드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국내 화장품 시장 정체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외로 발길을 옮기고 있음
- 토니모리는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지역을 비롯해 미국, 유럽, 중동 지역까지 세계 24개국, 5000여개 이상의 매장(숍인숍 포함)을 운영중에 있으며, 그 외 이니스프리, 네이처리퍼블릭, 미샤, 스킨푸드 등이 해외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음

관련링크: <http://www.ebn.co.kr/news/view/812039>

화장품 온라인 중국 수출 '정부가 직접 나선다'('16.1.15)

-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밝힌 연두업무보고에 따르면 산통부는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농수산물, 의약품 등 유망 소비재를 신(新)수출 동력으로 육성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美아마존, 中타오바오 등) 입점 지원 확대 및 해외 온라인 유통벤더 초청 상담회를 확대하고, 고부가 융합제품 연구개발 등에 877억원을 지원 등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음

관련링크: http://beautyhankook.wow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623#close_kova

정부 지정 차세대 7대 산업 중 화장품 활약 독보적('16.1.15)

- 유망 수출산업으로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7개의 산업군은 ▲화장품 ▲의약품 ▲의료용 전자기기 ▲중전기 ▲플라스틱 제품 ▲축전지(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장비이며, 이 7개 후발산업은 1990년대 말부터 제조업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며 꾸준한 수출 확대를 통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수출산업을 전폭적으로 지탱하고 있음
- 2특히 화장품의 경우 매년 하락 없이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9.0%, 2013년 24.3%, 2014년에는 51.6%로 전년 대비 2배에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후발 업종 중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70565/cat/10/page/1>

신규 면세점, 국산 중소화장품 브랜드에 '기회의 땅'('16.1.20)

- 신규 면세점이 잇달아 문을 열면서 국내 화장품 업체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렸으며, 면세점에서 기존에 입지가 탄탄했던 대기업은 물론이거니와 면세점 입점이 쉽지 않던 중소 업체들도 면세점이 늘어나면서 사업 확장의 가능성이 커졌음
- 20일 면세점 및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최근 문을 연 신규 면세점들은 국산 화장품 브랜드 비중을 대폭 강화했으며, 지난해 12월 말 용산에 개장한 HDC신라면세점에는 전체 입점 브랜드 400여개 가운데 화장품 브랜드가 150여개로 4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함

관련링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2517>

日 화장품업체들 중국서 철수하거나 사업 축소('16.1.15)

- 일본 화장품 업체들은 중국경제가 둔화되고 있는데다 화장품의 주요판로인 백화점 업계의 과당경쟁, 전자 상거래의 보급에 시달리고 있으며, 현지 업체와 한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산케이 신문은 분석했음
- 코세의 고바야시 가즈토시 사장은 "중국 시장이 격변했다"고 말했으며, 중국 소비자들이 자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하는 등 영향으로 현지 생산품이 생각처럼 팔리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음

관련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5/0200000000AKR20160115138000009.HTML?input=1195m>

식약처, 의약품·화장품 등 가이드라인 개정('16.1.20)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약품, 화장품, 한약(생약)제제의 개발을 지원하고 허가·심사의 예측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분야별 허가·심사 가

이드라인 및 해설서' 발간 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올해 발간될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약품, 화장품, 한약(생약)제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제약업체, 연구개발자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허가·심사의 예측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발간계획을 업계와 공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링크: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478>

동남아 할랄 화장품 시장규모 연 100조원('16.1.19)

-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 율법을 따른 '할랄(halal)' 화장품 및 생활용품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지아신문이 19일 보도했으며, 일본 등 글로벌 기업이 연간 10조엔(약 100조원)에 이르는 관련 시장 공략을 서두르고 있음
- 기업이 동남아 할랄시장에 공들이고 있는 것은 이들 지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화장품과 삼푸, 치약 등 생필품 소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며, 무슬림이 화장품이나 생필품에 대해선 음식처럼 엄격하게 율법을 따르는 편은 아니지만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면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함

관련링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11956881>

코스맥스, 세계 1위 화장품 제조사 됐다('16.1.19)

- 화장품 제조기업 코스맥스가 세계 화장품 ODM(제조자개발생산)·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계 1위에 올랐으며, 'K뷰티' 영향으로 화장품 브랜드숍 시장 성장이 지속되는데다 중국 등 해외사업까지 순항해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를 고수해온 이탈리아 인터코스를 단숨에 추월했음
-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스맥스그룹의 지난해 화장품 사업부문 예상 매출액은 6027억원으로 전년 대비 43.5% 증가했으며, 화장품 제조시장 글로벌 1위 업체인 인터코스 예상 매출액 5000억원을 크게 앞선 수치임

관련링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11816540078785&outlink=1>

“韓 화장품 위생허가 받는데 1년반”-전경련, 靑 공무원에 고충 전달('16.1.21)

- 전경련은 아시아개발은행연구원(ADB), 한국경제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아시아 국가의 공무원들을 초청해 지난 2일간(20~21

일)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사례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최하였고, 이날 아시아 국가 공무원에게 우리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달했음

-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 위생허가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 반 이상으로 지나치게 길다는 점 △일부 아시아 국가 주재원 비자 유효기간이 짧다는 점 △인도네시아 내 수입 지정 항목이 적어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등이 포함됐음

관련링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12117091831020&outlink=1>

국내 유일 화장품원료산업 전시회 '인-코스메틱스 코리아' 7월 개최('16.1.21)

- '인-코스메틱스 코리아(in-cosmetics Korea)'의 주최사'리드엑시비션(Reed Exhibitions)'은 사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오는 7월에 개최될 '인-코스메틱스 코리아 2016'는 전년 대비 약 25% 확대된 규모로 개최되고, 참관객 또한 약 28% 증가한 4,000여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함
- 전시회가 6개월 정도 남은 현재, 국내외 수많은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들이 전시참가신청을 마쳤으며, 이중 해외 업체가 54%를 차지하고 있음

관련링크: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8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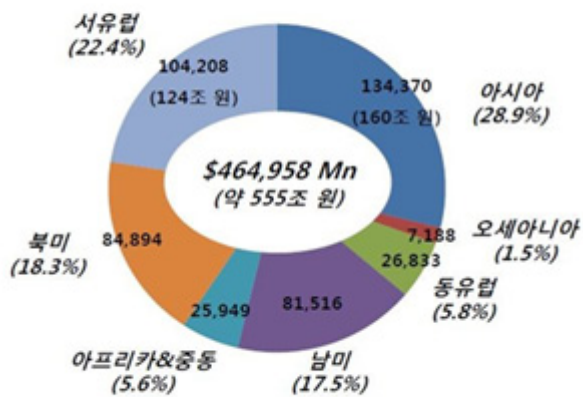
화장품 시장 환경 변화

화장품 시장 환경 변화

글로벌 Cosmetics & Toiletries (C&T) 시장 성장

- 2014년 기준 아시아 시장은 글로벌 C&T 시장에서 약 29% 시장점유율을 가진 1위 시장 형성

2014년 글로벌 C&T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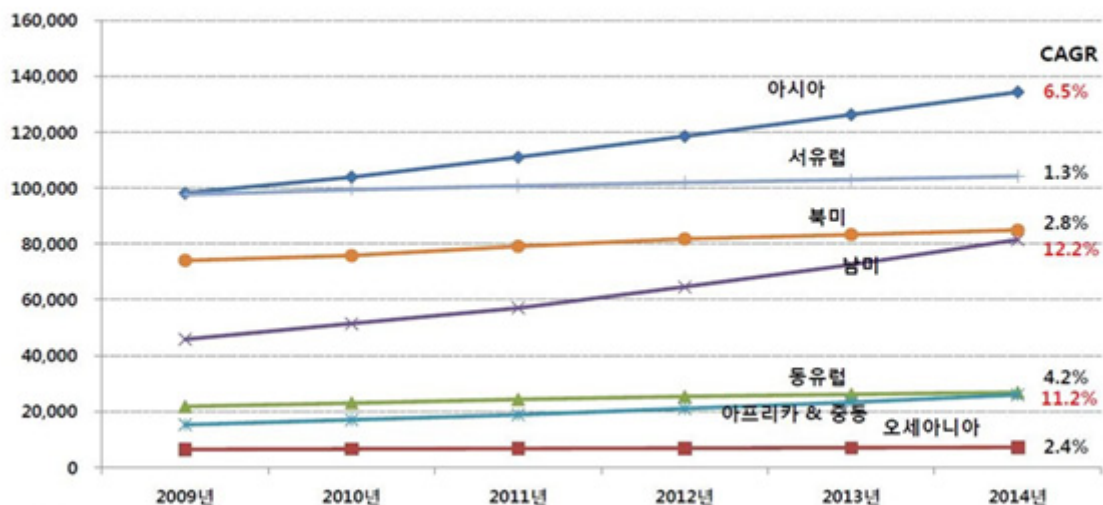
- 출처: Euromonitor
- 단위: US \$ Mn

최근 6년 글로벌 C&T 시장 성장률



최근 6년간 대륙별 C&T 시장 성장률 비교

- 성숙시장(서유럽, 북미)은 3% 미만의 저성장, 성장시장(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 중동)은 6 ~ 12% 고성장



- 출처: Euromonitor
- 단위: US \$ Mn

인도 화장품 시장,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1)

-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형성된 거대한 화장품 시장 -
- 시장 진출 위해서는 진출 장애물 극복 필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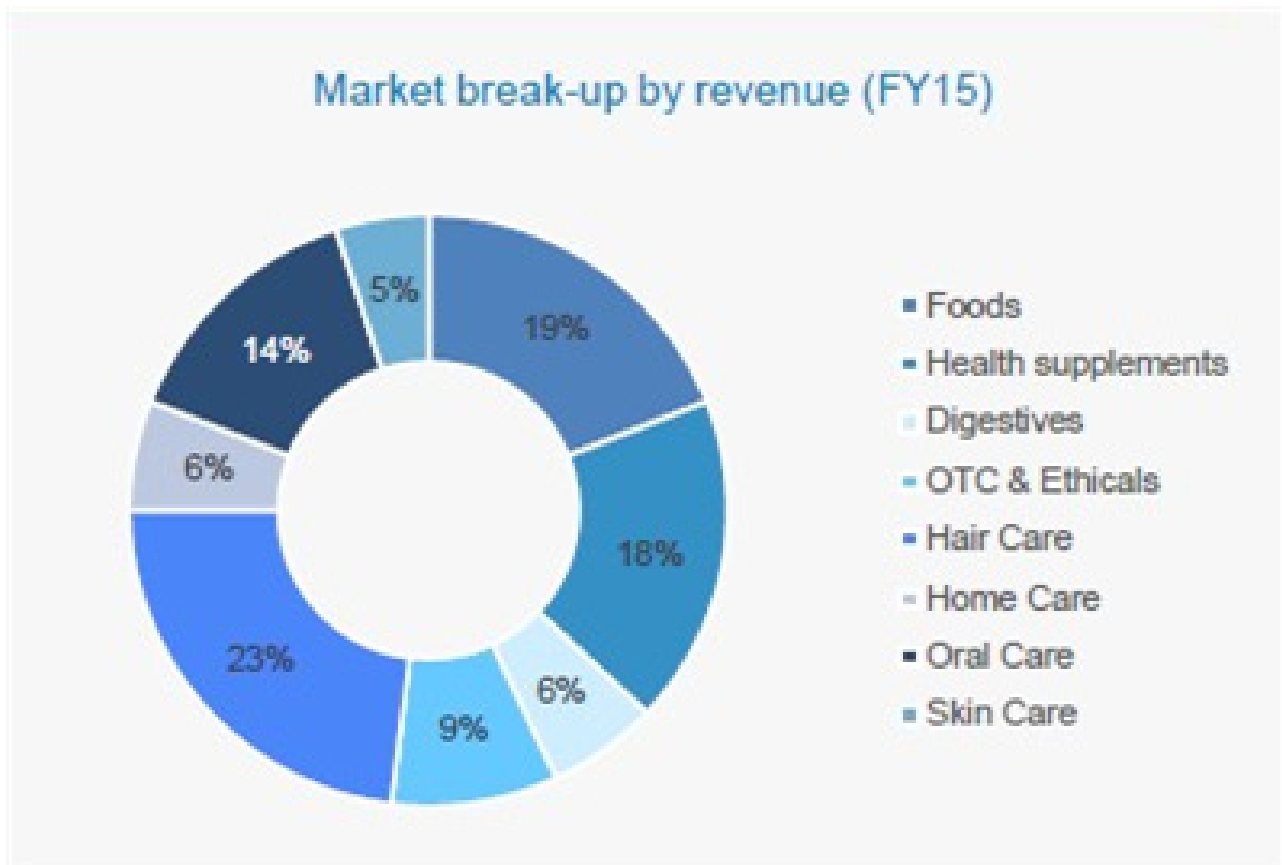
인도 화장품 시장 구성

- 인도 화장품 시장은 다음과 같이 네 분야로 구성돼 있음.

헤어케어	샴푸/컨디셔너, 염색용품, 스타일 제품(왁스, 젤 스프레이 등)
화장용품 & 피부 관리	색조용 화장품, 메이크업용 화장품, 보습용 로션, 태닝제품, 선케어용 제품
향수류	향수, 바디 스프레이, 오드콜로뉴(연한 향수), 데오드란트
기타	매니큐어, 면도용품, 마사지 용품, 탈모용품 등

- 인도 화장품 시장 현황

인도 일용소비재 구성 현황



자료원: IBEF

- 헤어케어 시장이 일용소비재 시장의 23%를 점유하고, 스킨케어시장이 5%를 점유하고 있음.
- 수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인도는 헤어케어 시장의 비중이 매우 큰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음.

인도 화장품 대표 기업 소개

기업명		설립연도	국적	특징
Lakme		1952	인도	– Lakme는 Hindustan Unilever가 소유한 브랜드 – 인도 초대 총리 네루가 인도 여성들이 화장품에 외화를 지나치게 소비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탄생한 브랜드
L'Oreal		1909	프랑스	– 세계에서 가장 큰 화장품 브랜드이며 Lancome, Biotherm, The Body Shop 등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음.
Emami Limited		1974	인도	– 인도 콜카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백크림 부문이 유명함. – 남성 미백 크림의 경우 시장 선두를 달리고 있음.
Himalaya Herbals		1930	인도	– 고대 인도 의학인 아유르베다를 화장품에 접목시킨 브랜드 – 현재 55개국에 수출 중인 인도의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
Elle 18		1998	인도	– Hindustan Unilever가 보유한 브랜드 중 하나로 10대와 20대 여성 고객을 겨냥한 브랜드 – 립스틱, 매니큐어, 아이라이너 등의 색조화장품이 대표적
Bajaj Corp		1930	인도	– 인도 대기업 Baja Group이 소유한 브랜드로 헤어오일 제품이 가장 유명
Amway		1959	미국	– 다양한 품목에 걸쳐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현재 인도 미백 화장품 시장을 겨냥해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음.
Biotique		1984	인도	– 방부제와 합성 향료를 첨가하지 않고 천연원료를 사용하는 브랜드로 유명 – 천연원료를 추출하는 허브를 초기단계부터 관리해 원료추출에 심혈을 기울임.
Marico		1987	인도	– Marico 사는 뭄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고 Parachute, Saffola 등의 브랜드를 소유 – 바디오일 제품이 유명함.
Lotus Herbals Limited		1993	인도	– Lotus는 설립 당시 포장과 디자인을 중시해 디자인이 뛰어난 편 – 좋은 원료와 고대 인도 의학인 아유르베다를 접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화장품시장 발전전망과 성장 요인

인도 화장품 시장 발전 전망

- 인도의 화장품 시장의 규모는 현재 약 9억5000만 달러에 달함. 또한 2020년에 약 3배 성장해 약 26억80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International Beauty Mart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화장품 시장은 매년 15~20%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유럽시장에 비해 두 배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임. 미백제품의 수요가 가장 눈에 띄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인도의 거대한 소비층과 성장하는 일용소비재 시장

인도 FMCG 시장 발전 전망



자료원: BIEF

- 인도의 일용소비재시장은 2015년 473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13% 성장해 2020년에는 1037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12억에 달하는 인구, 도시 지역의 확대, 젊은 소비층들의 구매력 향상 등을 바탕으로 일용소비재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음.

화장품에 대한 관심 증가

- 인도의 젊은 소비층은 기성 세대에 비해 구매력이 향상됐으며 화장품을 비롯한 외모 치장에 관심이 많음. 젊은 세대로 갈수록 미백, 색조 화장 및 피부 관리에 관심이 증가
- 인도는 현재 사회적으로 남성을 중심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성 화장품 시장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인도 화장품 시장 진출 장애물

인도 소비층의 한계

- 인도는 지속적으로 경제 규모도 성장하고 있으며 도시 중산층도 성장하고 있지만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평균 지출은 타 지역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
- 인도 인구의 대부분은 여전히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GDP는 1808달러에 불과
- 인도 화장품 시장의 경우 화장품보다는 비누, 치약 등 기본 스킨 및 헤어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음.

인도 화장품 시장의 고유한 특성

- 인도 화장품 시장의 경우, 원료를 매우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 인도의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들은 방부제와 인공 향료를 첨가하지 않으며 천연재료를 많이 사용
- 인도는 종교적·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채식주의자가 매우 많음. 동물성 유지가 사용된 화장품의 경우 피부에 바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고 HS CODE 330410, 330420, 330430, 330491, 330499 제품의 경우, 정부 규제상 수입이 금지됨.
- 수입 화장품의 경우 비교적 까다로운 수입 허가 절차를 통과해야 수입 가능

자료원: Assocham, Times of India, IBEF 및 KOTRA 뭄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2015-12-22 뭄바이무역관 〉

법령 정보

Korea
Cosmetic
Association

국내 화장품 산업계 동향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 이송(2016.01.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정부 이송 됨

- 화장품 품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
-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를 제외함
- 제조판매관리자에게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하고, 대표자 교육 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제조 또는 제조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함
-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의 화장품” 및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외에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표시하도록 함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로 하여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사용기준을 지정하거나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어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化妆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함
-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상기 대안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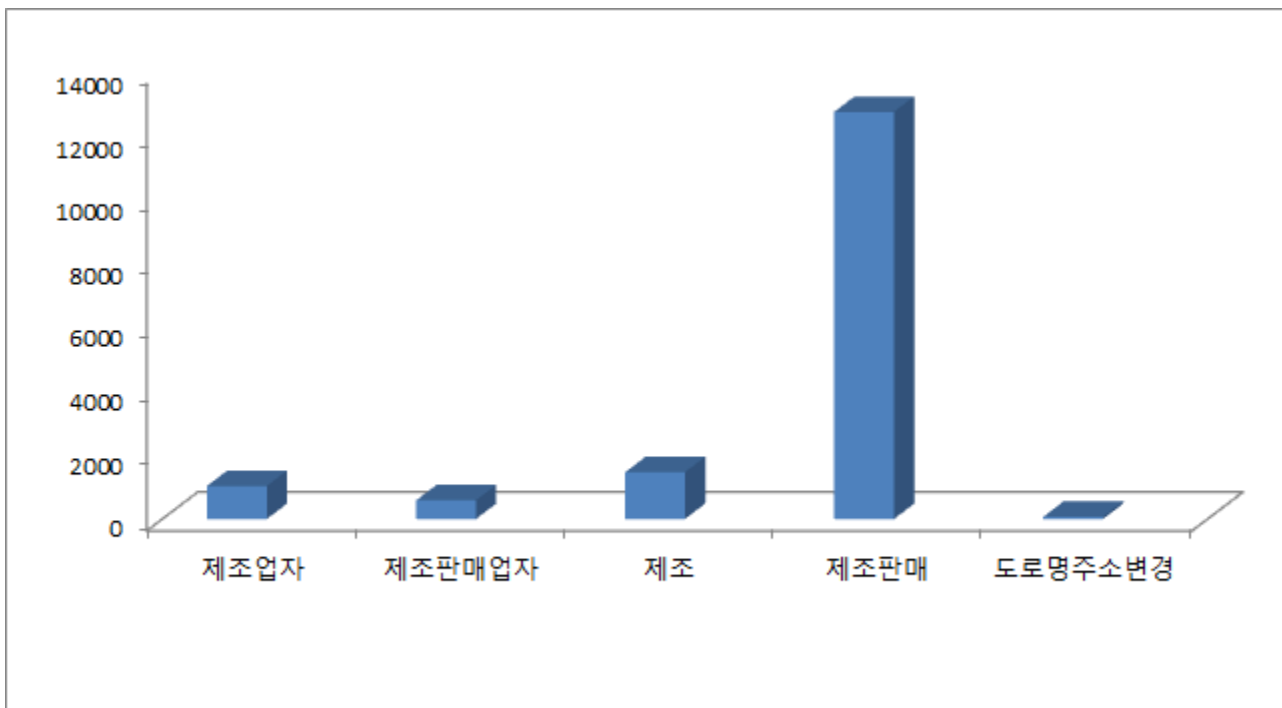
협회 업무추진현황

Korea
Cosmetic
Association

2015년 화장품관련 증명서 발급건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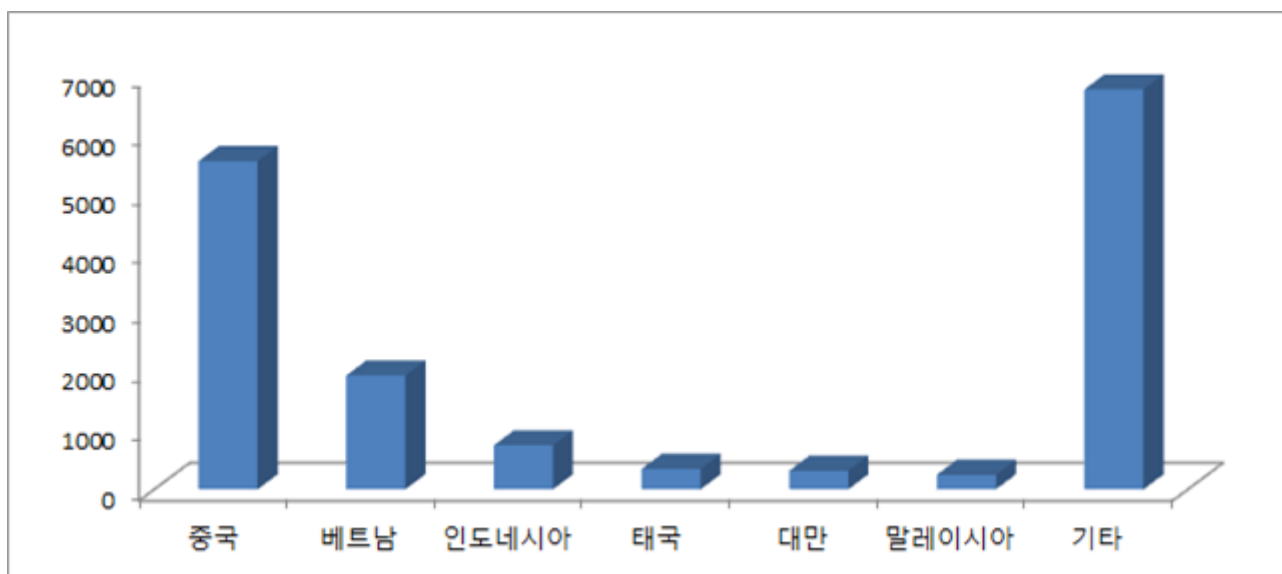
〈 2015년 증명서별 발급건수 〉

- 2015년 총 발급건수는 15,911건이며 제조업자증명 6.5%(1,038건), 제조판매업자증명 3.7%(585건), 제조증명 9.2%(1,466건), 제조판매증명 80.2%(12,754건), 도로명주소변경증명 0.4%(68건)로 발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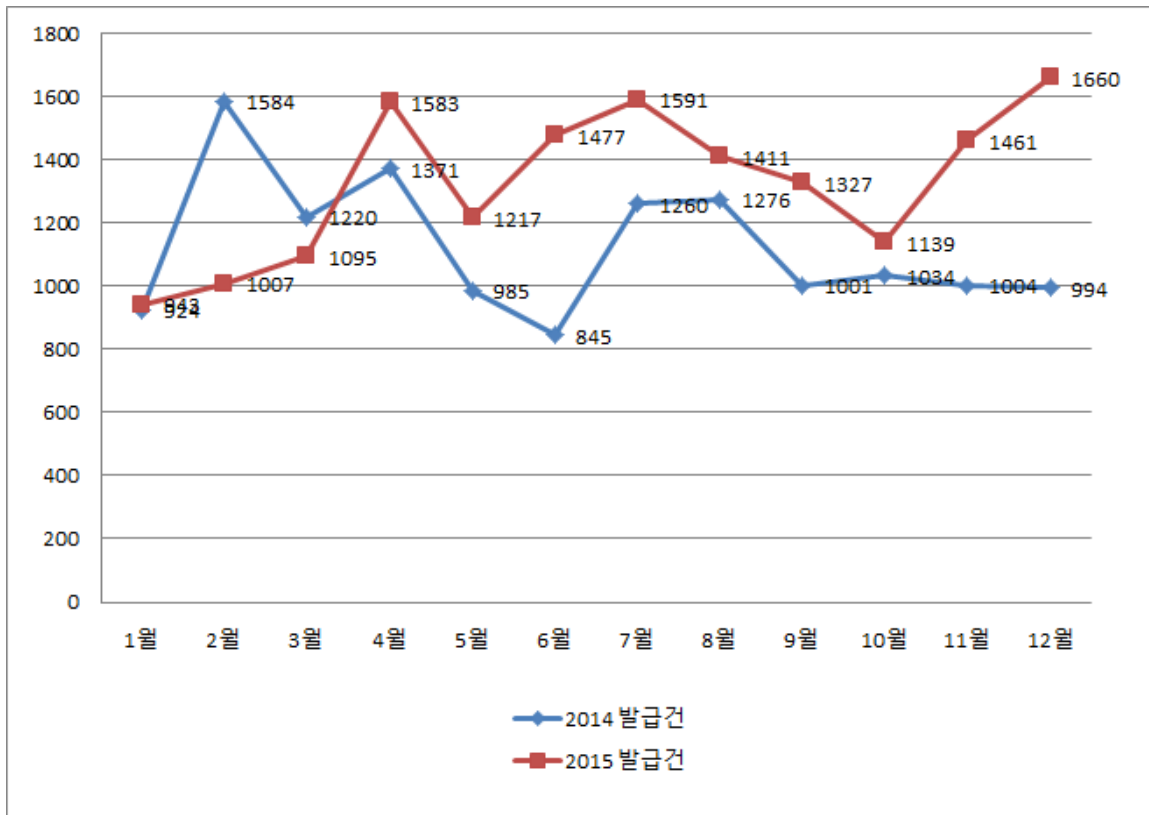
〈 2015년 국가별 발급건수 〉

- 2015년 화장품관련 증명서를 발급한 결과 중국이 34.9%(5,559건)로 가장 많이 발급되었고, 베트남이 12.1%(1,918건), 인도네시아가 4.6%(745건) 태국이 2.1%(345건), 대만이 1.9%(314건), 말레이시아 1.5%(247건) 순이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중국 및 동남아시아로의 발급건수가 높았다.



〈 건수별 비교 〉

- 2014년 발급건수는 13,498건이었으나, 2015년 발급건수는 15,911건으로 전년보다 17.9% 증가했다.



※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협회(jackl@s@kcia.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 행사

	행사명	일시	장소	비고
예정 행사	제67회 정기총회 개최	2.16(화) 11:00~11:40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미래 비전 선포식	2.16(화) 12:00~13:30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회장단 회의	1.29(금) 11:00~12:00	롯데호텔 도림	
	식약처장과의 신년하례식	1.29(금) 12:00~13:00	롯데호텔 도림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1.26(화) 10:00~17:30	서울여성플라자 회의실	
	화장품 정책 설명회	1.28(목) 14:00~17:00	서울 사학연금회관	

※2016년 전시회 일정

행사명	일시	장소	비고
in-cosmetics Europe 2016	2016.04.12~04.14	프랑스(파리)	모집중
2016코스모뷰티베트남전시회	2016.04.21~04.23	베트남(호치민)	모집완료
중국상해화장품전시회	2016.05.18~05.20	중국(상해)	모집완료
2016중국광주화장품미용박람회(추계)	2016.09.04~09.06	중국(광주)	
2016홍콩화장품미용박람회	2016.11.09~11.11	홍콩	

회원사 뉴스

Korea
Cosmetic
Association

신규 회원사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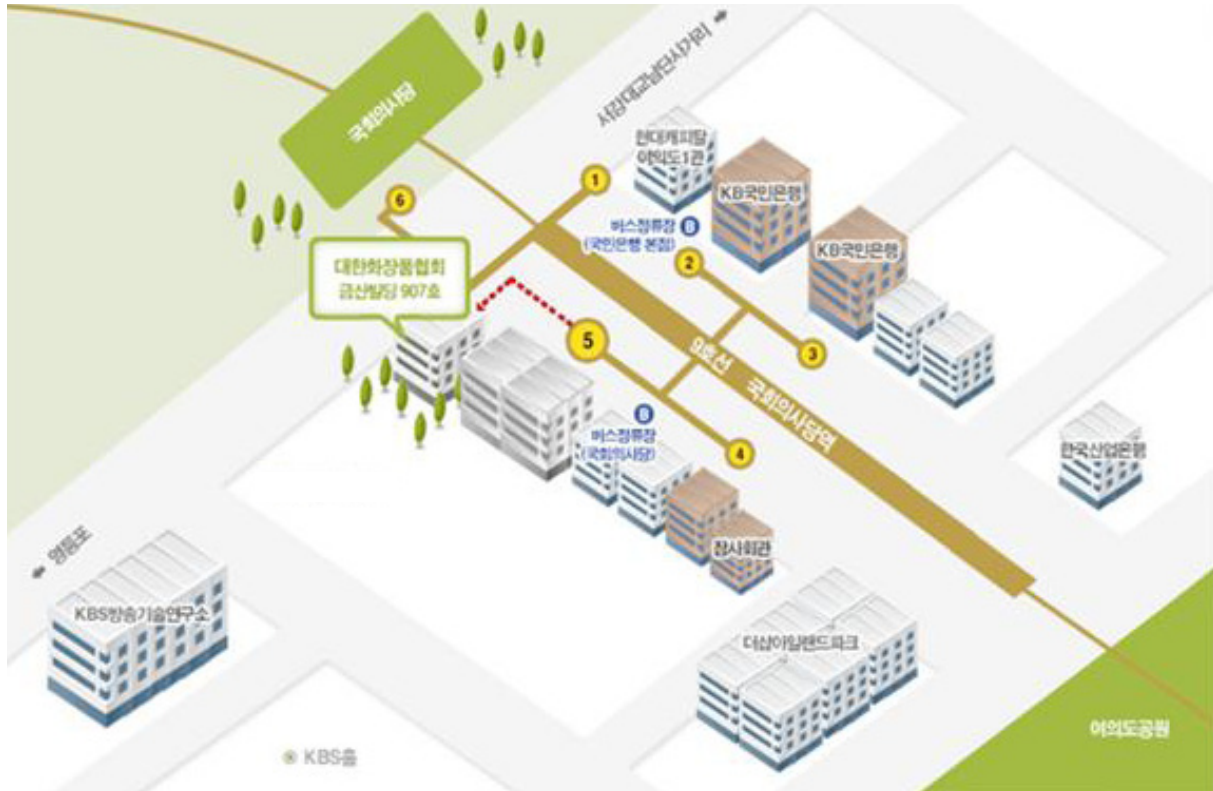


- 회 사 명 : 주식회사 비오코스
- 대표자명 : 유학수
- 설립일자 : 2014.07.01
- 종업원수 : 13 명
- 2014년 매출액 : 3,841,622,920원
- 자 본 금 : 3억
- 웹사이트 : www.biocos.co.kr
- 연 락 처 : 031-722-7185

회사소개

주) 코리아나 화장품의 연구개발 노하우와 최첨단 생산설비를 바탕으로 (주) 비오코스는 ODM/OEM Total Service를 제공

● 협회 주소 및 연락처



Tel 02-785-7984 Fax 02-782-6659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홈페이지 www.kcia.or.kr

협회 SNS를 통해서도 함께해요~!



www.facebook.com/hikca



twitter.com/kocosmetic

QR코드를 통해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세요~!

